



호박으로 '마녀의 집' 할리원 장식 만들기



매년 10월 31일은 할리원 데이이다. 할리원은 기원 전 500년 무렵 유럽 지역에 분포하던 고대 켈트족이 새해(11월 1일)를 맞아 기념하던 사원(Samhain) 축제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켈트족은 이날 인간이 사는 세계와 영적인 세계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살아 있는 사람들이 죽은 이들과 접촉할 수 있다고 믿었다. 켈트족은 죽은 이들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추수한 곡식과 가축으로 제사를 지내며 축제를 즐겼다. 귀신 분장은 죽은 이들이 살아 있는 이를 알아채지 못하도록 한다는 의미였다.

핼리원은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자들이 지내는 소규모 행사였다. 하지만 많은 유럽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유입되면서 점점 커졌다. 생전에 나쁜 짓을 많이 해 천국과 지옥 양쪽에서 원하지 않은 구두쇠 '잭'의 영혼이 들고 다녔다는 책오랜턴은 본래 순무로 만들었지만, 할리원 축제가 미국에 정착하고 나서부터는 순무보다 흔했던 호박을 이용해 만들었다고 한다. 이제는 지구인 축제가 된 할리원을 앞두고 가족이 함께 '더 팀' (thetip.kr)이 소개한 '호박으로 만든 마녀의 집' 장식물을 만들어 정원을 꾸미다면 자녀들에게는 잊지 못할 특별한 할리원이 될 것이다.

■ 준비물: 호박, 텁날 칼 혹은 다른 날카로운 칼, 글루건, 커튼으로 사용할 천, 끈, 나뭇가지, 나무 꼬치, 지점토, 아크릴 물감과 붓, 나무판, 이끼, 조약돌 혹은 작은 돌, 작은 버섯, 솔방울, 검은 판지로 만든 마녀 등 장식

■ 만드는 순서

① 호박의 꼭지를 지그재그로 자르고 속을 완전히 파낸다. 잘라낸 꼭지는 버리지 않고 보관한다.



② 호박에 텁날 칼로 두 개의 네모난 창을 만든다. 창문 사이에 문을 위한 공간을 남겨둔다.

③ 각 창문에 천을 커튼처럼 두 조각씩 붙인 다음 끈으로 묶는다.

④ 나뭇가지를 붙여 창문 틀을 만든다.

⑤ 두 창문 사이에 나뭇가지 3개를 붙여 문틀을 만든다.

⑥ 같은 길이의 나뭇가지 여러 개를 붙인 다음 나무 꼬치 2개를 붙여 다리를 만든다.

⑦ 나뭇가지로 난간을 만들어 다리를 완성한 후 나무 꼬치를 문 아래쪽에 고정한다.

⑧ 지점토로 문을 만들고 붓, 물감으로 나무처럼 보이게 꾸민다.

⑨ 호박 뚜껑의 꼭지 주위에 지점토로 굴뚝을 만든 다음 붓, 물감으로 굴뚝을 장식한다.

⑩ 호박을 나무판에 고정한 후 나뭇가지로 올타리를 만들고 이끼, 조약돌, 장식용 버섯, 솔방울로 장식한다.

⑪ 마녀를 창문 한쪽에 나무 꼬치로 꽂아 호박 뚜껑을 덮으면 마녀의 집 완성! 호박을 원하는 색으로 칠해도 좋고 또, 호박 안에 전등을 설치하면 더욱 생생한 마녀의 집이 된다.

사진=더팀

동안 시술 전문 벨라스킨 메디스파

맞춤 서비스가 가능한 다수의 최신 고성능 레이저 보유



미국 최대 레이저장비회사와 파트너십을 가진 레이저 최다 보유

FDA 승인받은 VIOLA 실리프팅 트레이닝 센터입니다.